[독후감]

김경희

항일의 불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 불멸의 태양

—《풍운초기》를 읽고서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풍운초기》라는 책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나는 친구에게서 빌려 갖고 집으로 돌아와 걸탐스레 읽었다.

《풍운초기》는 공산당의 령도하에 각성한 호타하 연안 인민들이 무장항일의 길에 오르고 항일근거지를 건립하기에 이르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을 배경으로 거세찬 혁명투쟁에 앞장선 기중지구 로동인민의 뜨거운 혁명열정을 열정적으로 구가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한사람 한사람이 나에게는 영웅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고사해, 고상, 고경산, 춘분, 춘아, 리패종, 망종, 로상, 변길가…

고상과 고경산은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을 보호하려는 뜻을 품고 항일구국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한 용감한 항일투사이다.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항일구국의 불씨를 지피였다. 가족보다 항일구국이 일순위였으며 호소력이 있었다. 그들은 솔선수범하여 '3대기률 8항주의'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팔로군은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인민을 해방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훌륭한 군인이라는 좋은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에서 백성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으며 백성들을 항일구국의 길로 이끌 수 있었다.

춘아, 춘분, 망종, 변길가, 로상은 고상과 고경산의 령도와 지도하에 각성하고 성장하여 용감한 항일전사로 활약한다. 백성들은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삶이 어려워도 공량을 바치는 데는 적극적이였으며 팔로군에게 신발을 만들어주고 하숙을 내주었으며 팔로군과 함께 항일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항일구국의 대오는 날따라 장대해졌으며 항일의 열정과 책임감은 하늘을 찌르듯했다. 항일구국하는 전사들과 백성들은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습도 하고 문화학습도 하였는데 그 열정이 드높았다. 고상과 고경산은 국민당이 높은 지위와 대우를 주겠다는 것에 티끌 만큼도 동요없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지 않고 국민당 편에 선 전유무와 당당하게 맞섰다.

글을 읽으며 나는 호매로운 남자를 만난 것 같아 흐뭇하였으며 고상과 고경산의 드높은 책임심과 열정, 설복력, 호소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일구국운동에서 녀자들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 그중에서도 리패종과 춘아가 가장 인상적이였다.

리패종은 항일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었는데 녀중호걸이라 말하고 싶다. 시아버지가 춘아를 밀어넘어뜨리고 머슴 로온에게 손을 댔다는 소송을 들었을 때 리패종은 현장답게 옳바르게 판결하고 자기 친정아버지가 항일구국운동을 파괴할 때에도 아버지와 맞서 싸웠으며 성벽을 허무는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에도 현장의 틀이 없이 백성들과 함께 일선에서 뛰였다. 항일신문을 찍는 인쇄기계에 라사천이 필요하다고 하자 서슴없이 자기의 라사천 외투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자상하였는데 팔로군들의 하숙정황을 일일이 료해하고 확인한 후에야 밤 늦게 현정부에 돌아왔다. 그의 항일열정과 지혜, 과단성에 나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춘아는 처음에는 대중들 앞에 나서기 쑥스러워하였지만 후에는 항일구국운동의 앞장에 섰다. 팔로군의 신을 만드는 임무를 집집에 맡길 때 전애꾸눈이 임무를 거부하고 머슴 로온을 발로 차자 현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리고 항일운동을 파괴하는 속아가 처녀 몸으로 팔로군과 아기를 낳았다는 억울한 루명을 추아에게 씌우려 할 때에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당당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기를 낳은 과부가 나서서 사실의 진상을 밝혔기에 그는 루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녀성들 속에서 위망이 높아졌다. 그는 항일구국운동을 파괴하는 분자들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인민을 충분히 동원하여 항일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고향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일본제국주의를 쫓아내는 일에서 한몫 톡톡히 했다.

문화 수준이 낮은 그는 조직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자 열심히 공부하였다.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 홀로 교실에 가서 공부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춘아는 두려움이 없었고 진취심이 강하며 맡겨진 임무를 넘쳐나게 완성하는 혁명전사일 뿐더러 옳고 그름이 선명하고 원칙성이 강하며 항일의 열정이 하늘을 찌르듯했다. 춘아의 폭풍성장, 학습열정과 완강한 의력에 또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 속의 영웅인물들은 항일전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고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소중한 청춘을 항일구국운동에 바치였다. 팔로군들이 백성들을 혈육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하였기에 백성들은 팔로군을 혈육보다 더 따르고 팔로군의 모든 것을 믿게 되였으며 항일구국 전투에 앞다투어 참가하였다. 군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항일하였기에 전투장비가 일본군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단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심심히 느끼며 나는 가슴이 설레였다.

오늘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은 항일영웅들의 피로 바꾸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한량없다. 내가 만약 항일전쟁을 겪었다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가 잠간 생각해보았다. 어쩐지 자신심이 없어 쑥스럽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혁명렬사들은 우리 곁을 영영 떠났지만 당과 혁명 사업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항일구국운동의 영웅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불멸의 태양입니다."

오후의 독서 산책

3월 13일 오후, 연길신화서점에서 포착한 독서 삼매경에 빠진 한 독자의 모습이다.

신화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라는 고착된 개념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연길신화서점에서는 오래전부터 구석구석에 쪽걸상을 비치하고 지정 독서구역도 조성하여 책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누구든 이 공간을 리용해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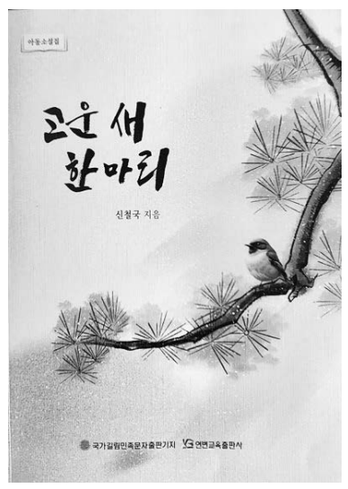
하여 연길신화서점은 언제 가든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독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휴식일이나 련휴 기간이면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독서실 못지 않은 진풍경을 이룬다.

/ 김가혜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아동소설집《고운 새 한마리》



연변작가협회 회원이며 자유기고인인 신철국이 지은 아동소설집《고운 새 한마리》가 최근 연변교육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였다.

신철국은 16살 나던 해인 1986년도에 아동소설〈신방주인〉을 창작하면서 문학창작의 첫 스타트를 떼였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문학창작에 정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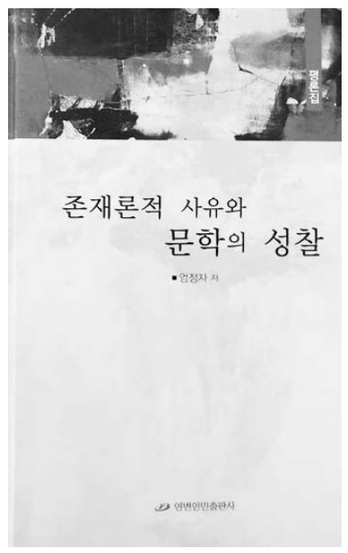
아동소설집《고운 새 한마리》에는 신철국작가가 창작보다 생활 체험이 우선이라는 문학창작 정신에 립각해 주위의 어린이들에게 과외로 글짓기를 가르치면서 창작한 아동소설 11편이 들어있다.

1971년 왕청현에서 출생한 신철국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를 졸업했으며 제1기 연변민족문학원과 제30기 로신문학원 중청년작가고급연구토론반을 수료했다. 그는 선후로 중국소수민족신문상, 화신문학상, 흑토문학상, 압록강문학상, 연변라지오문학상, 연변작가협회 실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단행본 장편스포츠실화《챔피언 1965》가 있으며 저서 기고와 공저로《60주년에 만난 60인》,《중국조선족백년실록》,《연변축구의 발자취를 찾아서》,《불완전 결투》 등이 있다.

/ 안상근기자

엄정자 평론집《존재론적 사유와 문학의 성찰》



엄정자의 평론집《존재론적 사유와 문학의 성찰》이 최근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였다. 이 평론집은 '연변작가협회 2023년도 중대제재, 중점작품 전단(前端)부축항목 도서'에 선정된 책으로서 주로 2010년대 중기부터 지금까지 발표되였거나 출간된 조선족문단의 대표적 작가들과 중견작가들의 작품, 책들을 텍스트로 분석, 연구하였다.

2010년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족문학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밖으로, 세계로 향하던 작가들의 시각이 국내로 돌려졌고 사회성, 민족성에 치우치던 창작 경향이 인간 중심의 경향으로 나아갔다.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서 인간 실존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이고도 복합적인 예술세계를 창조해가게 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평론들은 바로 이런 시대적 특색이 잘 드러난 작품들을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 이 시기 문학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

평론집《존재론적 사유와 문학의 성찰》은 기존의 평론들과는 좀 다른 각도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있다. 이 평론집의 해석은 독자들의 책읽기에 도움을 줄 것이며 후세대 평론가들의 연구에 참고서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엄정자는 근 30년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족 평론가이다. 2011년에 수필집《금밖에 나가기》(연변인민출판사), 2014년에 평론집《조선민족의 디아스포라와 새로운 엑소더스》(연변인민출판사)가 출간되였고 평론집《허련순작품론》이 2020년 연변작가협회 '중점작품 부축항목 도서'에 선정되였으며 2024년에 일본에서 평론집《시가 길이 된 시인》,《너머의 시선》 등이 출간되였다.

/ 안상근기자

장백산 총 260호 2025년 제2호

권두언
엽 매 연변에 사는 형제

장백산 특별조명
서영빈 인생 60, 드디여 세월과 화해하다 (외 3편) (수필)
김현철 온전한 자신과의 진한 악수 그리고 포옹 (평론)
서영빈 딥시크시대의 문학적인 글쓰기 (작가노트)

장백산 특집—'갑돌이'와 '갑순이'
전은주 갑돌이와 갑순이는 정말 사랑했을가?(문화비평)

장편기획련재
박문봉 동북 중국공산당 조직에서 활동한 첫 조선민족 녀성 간부 김명시 (인물전기)
리주천 하얀 술래 (장편소설, 련재 2)
리홍규 붉은 천 한조각 (장편소설, 련재 5)

중단편소설
김경희 사각지대 (단편소설)
문설근 가출 (단편소설)
리원철 여백 (단편소설)

장선자 소설코너
장선자 검은 숲 (단편소설)

수필
송련분 담배를 지키다 (외 3편)
오경희 혼자말
홍길남 하숙집 할머니
김 단 오랜만에 이어쓰는 육아일기
리상광 안해의 일탈

시
김영건 그 날 오후, 우리는 강물을 놓아주었다 (외 6수)
최 일 농익은 계절의 노래 (평론)
임은숙 신록 앞에서 (외 1수)
변창렬 벽 (외 3수)
최화길 뿌리 (외 2수)
리홍철 구멍
한춘옥 가을하늘
백진숙 시집과 친정집

번역작품
소 근 (한영남 옮김) 료뻥다페이합창단 (중편소설)

장백산 루계 260
칼라 4 김광영 사진 & 신목 시 음달의 침묵 (사진과 시)
칼라 9 엽매 연변에 사는 형제 (권두언 원문)
장 광 표지그림